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USNews: 미 3분기 경상수지 적자 줄어... 석유 수출로
- CNN Business: 미 소비자 신뢰지수 지난 7월 이래 가장 높아
- Bloomberg: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금리 인하 시급하지 않아”

[미국 금융]

- Bloomberg: 연방 금융 관계자들, “부채 재융자 비용 조금 더 들 것으로 예상”
- JP 모건: FOMC 회의 이후 산태 랠리가 내년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미국 생활]

- WSJ: 미 인구 성장, 팬데믹 이후 계속 둔화

[글로벌 경제]

- The Economist: 2023년을 잘 견뎌낸 국가는?
- Bloomberg: 홍해 리스크,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박
- Bloomberg: 미국, 홍해 문제에 대응 고심하다... 백 여척 우회중

[주택]

- WSJ: 11월 미 주택 판매, 5개월 하락후 상승
- WSJ: 미 주택 경기 참체가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에너지]

- CNN Business: 미국, 역사상 원유 생산량 최고치 기록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패스트푸드 기업들, 매출 높은 음료 산업에 집중
- Bloomberg: General Mills, 소비 둔화에 매출 전망 낮추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USNews: US Current Account Deficit Narrows in Third Quarter on Petroleum Exports

미 3분기 경상수지 적자 줄어... 석유 수출로

- 오늘 수요일 미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3분기 경상수지적자가 지난 2년 여간에 가장 적었다.
-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상품, 서비스, 투자 교역을 측정하는 경상수지 적자가 3분기에 7.6% 즉 165억불 줄어든 2천3억달러로 집계됐다.
- 경상수지 적자를 미 GDP 점유율과 비교해 볼때 2분기에는 3.2%, 3분기에는 2.9%로 줄었다. 미국은 현재 원유와 연료의 순 수출국이다.

USNews 기사

CNNBusiness: US consumers' confidence levels are at their highest level since July**미 소비자 신뢰지수 지난 7월 이래 가장 높아**

- 12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연속 3개월 상승중이며 지난 7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다고 컨퍼런스 보드는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 11월의 하향 조정된 101에서 12월에는 110.7로 크게 올랐다.
- 이같은 긍정적인 원인은 현재의 긍정적인 비즈니스 여건과 일자리 뿐만 아니라 향후 6개월간 노동시장, 개인 소득 전망, 비즈니스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Fed's Bostic Says He Doesn't See Urgency to Cut Interest Rates**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금리 인하 시급하지 않아”**

- 애틀랜타 연방은행총재인Raphael Bostic는 내년에 금리를 시급하게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 관리들이 다음번 정책 움직임을 평가하려 할때 단호하거나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그같은 이유로 “인플레이션이 향후 6개월간 상대적으로 천천히 둔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우리가 제약적인 입장을 긴급하게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US Finance Chiefs Expect to Pay Slightly More to Refinance Debt****연방 금융 관계자들, “부채 재융자 비용 조금 더 들 것으로 예상”**

- 미 금융 책임자들은 내년과 2025년에 만기 부채를 재융자하기 위한 비용을 조금더 올라가야 하고 그 이후에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듀크 대학과 리치만도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 밝혔졌다. 443명의 공공 및 민간 금융사 책임자들의 답변 결과다.
- 구체적으로 이들은 부채 상환을 연장하는 이른바 롤오버할 경우 2024년에는 1백20베이스스 포인트 더, 그리고 2025년에는 70 베이스스 포인트 비용이 더 들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JP 모건: Will the post-FOMC Santa rally carry over into 2024? FOMC 회의 이후 산테 랠리가 내년도에도 계속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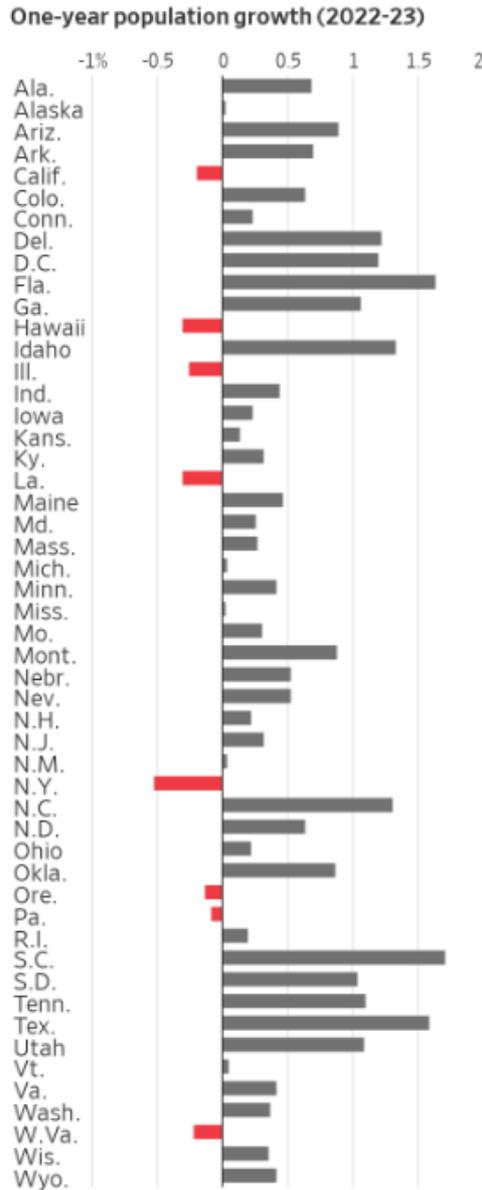
- JP 모건 경제팀은 연중이 처음으로 양적완화를 할 시기를 내년 6월로 앞당겼다. 내년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125bp의 양적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 금리 전략팀은 2년물 YE 24 목표치를 3.25%로 25bp, 10년물 전망치를 3.65%로 10bp로 낮추었다.
- JP 전략가들은 수수감사절 직전 2024년 전망치를 발표한 이후 스프레드와 수익률이 각각 13 bp와 64bp 하락했는데 스프레드가 추가로 축소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JP 모건 기사

[미국 생활]

WSJ: U.S. Population Growth Continues Slow Recovery From Pandemic 미 인구 성장, 팬데믹 이후 계속 둔화

- 어제 화요일 미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인구가 0.5% 늘어났다. 이는 팬데믹이 그동안 출산, 사망 그리고 이민 등에 미쳐왔던 영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 올해 6월 30일로 마감된 한 해 동안의 인구 증가율은 0.4%로 작년과 비슷했다. 이는 한 해 동안 160만명이 증가한 것인데, 팬데믹 이전의 10년 동안 미국은 연평균 210만명의 인구 증가를 보였다.
- 미국의 인구성장은 이민자들의 역할이 컸는데,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을 오가는 순 이민자의 수는 전년도 대비 백만명에서 1백 1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 성장률의 70%를 차지한다.



Note: For year that ended June 30
Source: U.S. Census Bureau

WSJ 기사

[글로벌 경제]

**The Economist: Which economy did best in 2023?
2023년을 잘 견뎌낸 국가는?**

- 이코노미스트가 5개의 경제 금융 지표인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정도, GDP, 고용 그리고 주식 시장 성과를 통해 가장 부유한 35개국의 데이터를 집계했다. 또한 각 항목에서 해당 국가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따라 순위를 매겨 종합 점수를 산출했다.
- 먼저 1위 국가는 그리스다. 최근까지 부실 국가의 대명사였던 것에 비하면 주목할만한 결과다. 2위는 한국, 3위는 미국이다.
- 우선, 에너지와 식료품 같은 변동물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에서 한국과 일본이 물가를 잘 억제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 인플레이션 정도(inflation breadth) 항목에서 한국은 2022년도에 공격적 금리 인상을 감행했고, 효과가 나타나 성과를 거뒀다. 한국의 인플레이션 정도는 73%에서 60%로 떨어졌다.
- 고용과 GDP 성장에 있어서, 눈에 띄게 성장한 나라는 없었지만, GDP가 감소한 국가 또한 소수에 불과했다. 아일랜드는 4.1% 하락으로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 다만, 미국이 두 부문에서 성과가 괜찮았는데, 기록적인 에너지 생산과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시행한 관대한 재정 부양책이 효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인공지능 기술주로 인해 상황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중간 정도의 성과를 낸 것에 불과했다.

Blessed by the gods

Selected OECD countries, Q4 2022-Q3 2023

Ranking	Core prices* % increase	Inflation breadth† %-point change	GDP % change	Employment‡ % change	Share prices** % change	
^	◇	◇	◇	◇	◇	
1 Greece		3.4	-13.3	1.2	1.1	43.8
2 South Korea		3.2	-13.3	1.6	1.1	7.2
3 United States		4.0	-18.8	2.3	1.3	4.3
4 Israel		3.2	-6.3	2.3	2.4	-5.1
5 Luxembourg		3.7	-26.7	0.5	4.1	-0.8
6 Canada		3.7	-15.4	0.7	1.6	0.2

The Economist 기사

Bloomberg: Red Sea Chaos Risks Driving Up Price of Goods for Global Economy

홍해 리스크, 글로벌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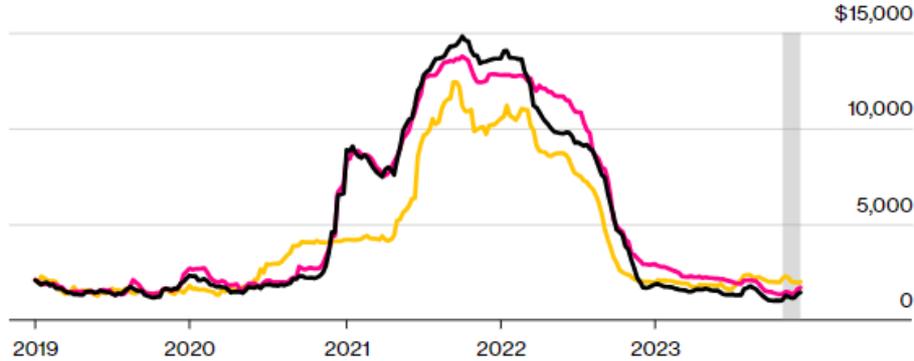
-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과 관련 있는 홍해 지역에서의 공격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면서, 상품 가격을 올리게 되어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져오고 있다.
- 해운사들은 이란의 지지를 받는 후티 반군들이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자 화물선들의 경로를 수정하고 있다. 화물선들은 짧은 경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보다는 아프리카를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 항로를 수정하는 것은 더 높은 선박비용과 배송 지연을 의미한다.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로이며, 글로벌 해상 무역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40피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비용은 44%까지, 제노바까지는 26%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의 수준보다는 훨씬 낮은 정도이다.

Cost of Shipping to Europe From China Rising Again

But nowhere near the levels hit during the pandemic

/ Shanghai to Rotterdam / Shanghai to Genoa / Shanghai to Los Angeles
 ■ Past 6 wee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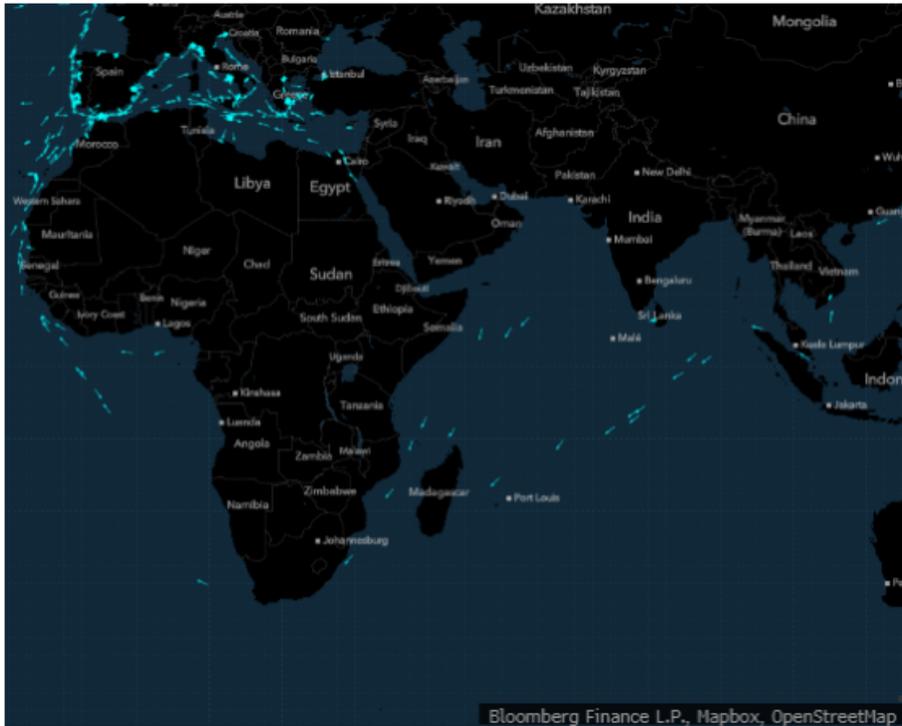
Source: Drewry World Container Index, shows freight rate for 40-foot container

Bloomberg 기사

Bloomberg: Over 100 Container Ships Reroute as US Weighs Red Sea Response

미국, 홍해 문제에 대응 고심하다... 백 여척 우회중

- 홍해 지역의 공격을 피하고자, 백여척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들이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경로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위협에 고심하고 있다.
-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국적 태스크 포스를 준비중이지만, 언제 출범할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후티 반군에 무력 공습 또한 고민하고 있지만,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장으로는 외교적인 해법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다.
-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공습이 후티 반군을 더 자극할 것이라 경고한다.
- 이번 사태는 2021년 수에즈 운하 폐쇄로 인해 선박들이 일주일 동안 멈춰섰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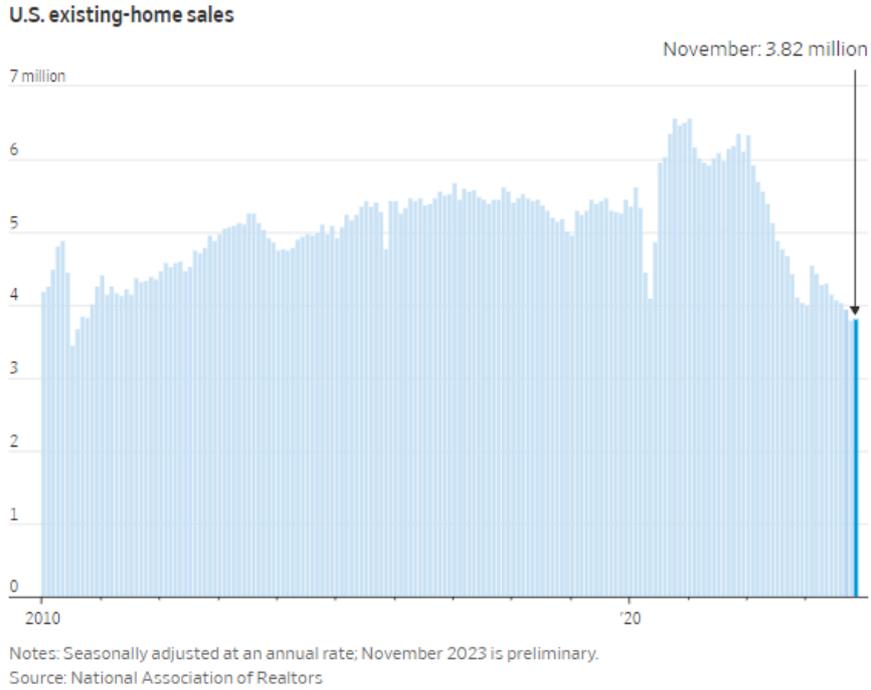
Container ships bound for western Europe are heading about the southern tip of Africa, avoiding the threat of attacks in the Red Sea. The detour adds 10-14 days to the journey.

Bloomberg 기사

[주택]

WSJ: Home Sales Ticked Up in November After 5 Months of Declines 11월 미 주택 판매, 5개월 하락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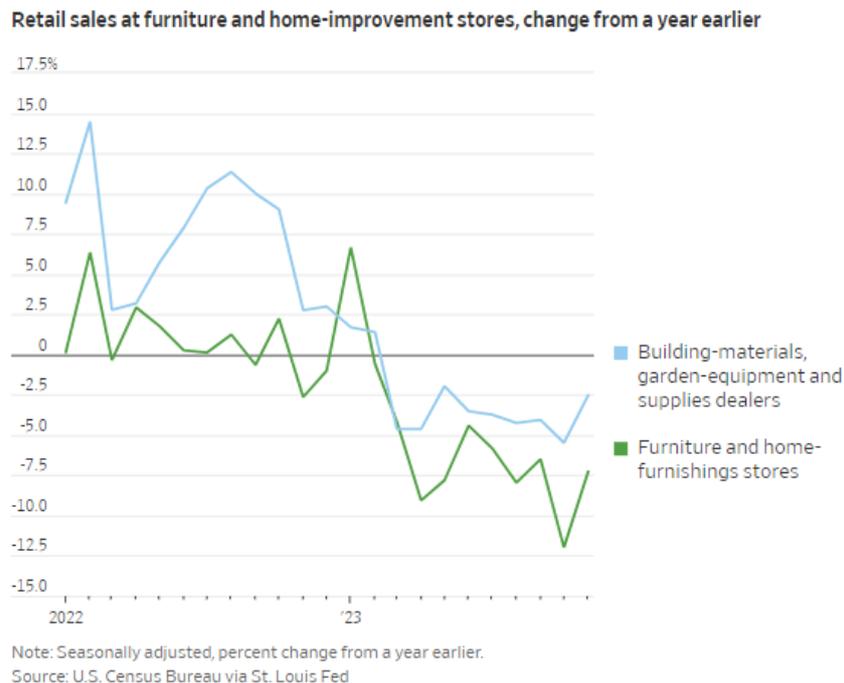
- 13년만에 가장 낮았던 미 주택 판매가 5개월 연속 하락한 후에 11월 들어 상승했다. 20년만에 거의 최고치인 모기지율이 주택 판매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다.
-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이 11월에 전월 대비해 0.8% 상승한 계절조정치로 3백82만채를 기록했다고 전국부동산협회가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 작년과 비교해서 11월 판매는 7.3% 감소했다.
- 올해 전체의 기존 주택 판매는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진행중이다.
- 또한 10월 주택 구입 여력은 1985년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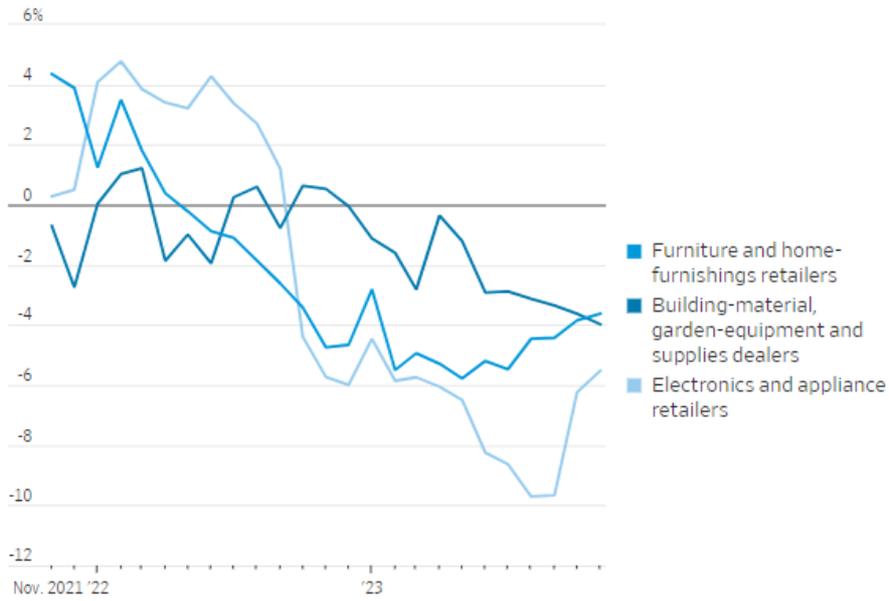
WSJ: How the Housing Market Slowdown Is Rippling Through the Economy in Five Charts
미 주택 경기 침체가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 주택 건설 활동은 2022년 초부터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11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 가구(Furniture)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 및 주택 리모델링 매장을 지출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 당연히 주택 산업 전반에 걸친 즉, 가구 및 전자제품 소매업체, 주택 리모델리 회사 등 부동산 관련 산업의 고용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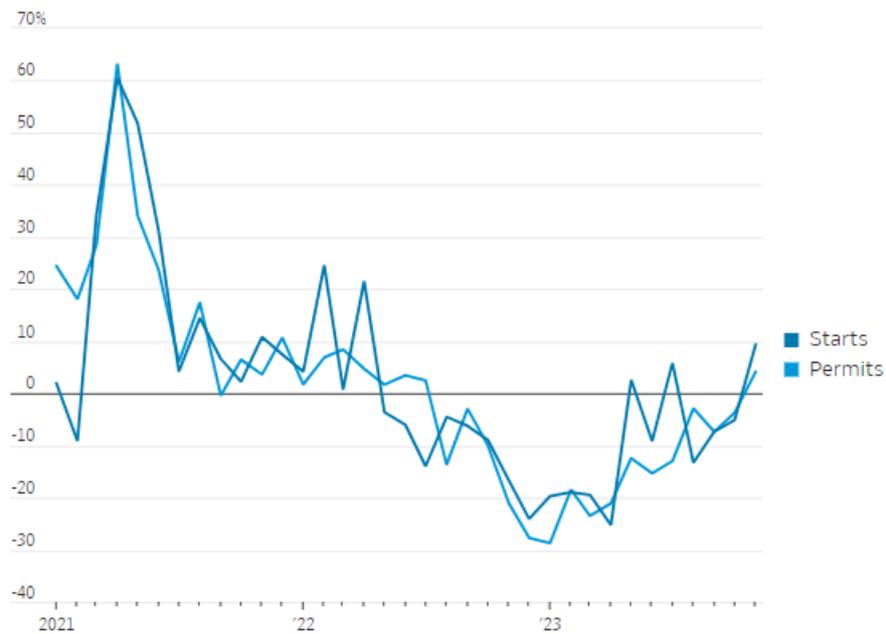
Employment in select industries,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Seasonally adjusted.
Source: Labor Department via St. Louis Fed

- 긍정적인 신호는 주택 건설 활동이 지난달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11월 허가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가 증가했다. 경기 둔화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Housing starts and permits, change from a year earlier



Source: U.S. Census Bureau via St. Louis Fed

WSJ 기사

[에너지]

CNN Business: The United States is producing more oil than any country in history

미국, 역사상 원유 생산량 최고치 기록

- 미국이 역사상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가 화요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4분기에 하루당 1천3백30만 배럴을 생산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오일 생산량은 하루당 1천3백20만 배럴을 기록했다.
- 미국의 오일 생산량이 원유와 휘발유 가격의 상승을 막는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The Fast-Food Industry Wants to Be the Fast-Drinks Industry, Too 패스트푸드 기업들, 매출 높은 음료 산업에 집중

- 카페인과 과일 맛이 첨가된 차가운 음료가 학생들과 인플루언서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까지 사로잡았다.
- 맥도날드가 이번 달 테이크아웃을 지향하는 새로운 식당인 CosMc's를 출시한다. Churro Frappés와 Pomegranate Hibiscus Slush 같이 고객 맞춤형 음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번 달 타코벨은 멕시코 초콜릿 맛이 첨가된 새로운 형태의 커피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으며, Jack in the Box는 11월에 타피오카 펄(tapioca pearl) 또는 보바(boba)가 들어간 음료를 제공하는 첫 패스트 푸드 체인점이라 홍보했다.
- 햄버거와 브리토로 유명한 기업들이 고객들이 마시는 음료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패스트 푸드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거라 보고 있다.
- 스타벅스는 최근 몇년 동안 시럽, 크림 그리고 음료만으로 연 10억 달러의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General Mills Cuts Outlook as Cautious Shoppers Hold Back General Mills, 소비 둔화에 매출 전망 낮추다

- General Mills이 예상보다 느린 판매량 회복과 소비자들이 소비에 신중해지면서 외부 요소를 제외한 순수 매출 전망을 낮췄다.

- 식품 가공업체인 General Mills의 CEO인 Jeff Harmening는 소비자들이 예상보다 소비에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출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 기업은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시장점유율에 단기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회계연도 2분기 판매량은 4% 포인트 감소했으며, 그리고 북미 소매 부문이 그 뒤를 이었다.
- 이 기업의 주가는 오늘 9시 34분 기준 2.2% 하락해 한 주당 65.26달러로 떨어졌다. 어제 화요일 종가까지 주가는 올해 들어 20%까지 하락한 반면, S&P 지수는 24%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시장관심은 금리인하 시점·속도인데..."파월 피벗이 혼란 야기"

"일부 연준 위원들, 3월 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

제목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피벗(정책 전환)이 연준이 언제, 얼마나 빨리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혼란을 조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이하 현지시간) 진단했다.

일부 연준 위원은 내년 3월 금리 인하 기대에 제동을 걸며 자신들이 가진 옵션들을 열어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에 상치(중간값)는 4.6%로, 지난 9월 예상치인 5.1%에서 0.5%포인트나 하락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